

사범대학 교육 과정 운영 개선방안

윤 태 건*

목 차

- I. 서론
- II. 사범대학은 교육과정의 문제점
- III. 개선방안

I. 서론

우리나라의 사범대학은 중·고등학교의 교원을 양성(교육법 118조)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이래 그 목적에 충실하여 유능한 중등교원을 배출하여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왔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사범대학,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소리가 오래 전부터 높낮이를 달리 하면서 되풀이되어 왔으나 최근에 와서 직면하는 문제들은 과거부터 제기되어왔던 문제들 뿐 아니라 다양하고 심각한 수준이다. 그 문제점들은 설립 목적의 퇴색과 관련된 내용으로부터 교원 자격 공급 문제, 사범대학 지원 체계 등 사범대학 내외의 여러 변수들에 의하여 야기되는 복합성을 띠고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범대학의 교원양성제도와 관련하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교육개혁안에는 항상 교원정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교원양성 개혁방안 역시 단골 메뉴로 빠진 적이 없었다. 그때마다 교원양성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었으나 논의만 무성할 뿐 별다른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중등교원양성과 관련하여 사범대학들이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문제점들은 사범대학 내외의 여러 변수들에 의하여 야기되는 복합성을 띠고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원인의 다각적인 규명, 문제해결들을 위한 여러 대안들의 검토, 그리고 최선의 대안 선택과 합의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다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각적인 연구와 실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범대학이 당면하는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하려는 논의보다는 사범대학의 교육과정편성·운영에 대하여 일선 중·고등학교 현장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의 문제점

“교육의 질(質)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이 명제는 아무리 교육시설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교사의 질이 우수하다면 훌륭한 교육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학생의 학업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교사의 질이 우수하다면 훌륭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말하자면 교육의 질을 본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교사이며 따라서 교사는 교육의 주체라는 점이다. 이는 아무리 교육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이 바뀌더라도 변할 수 없는 교육의 본질이다.

교사의 질(質)을 규정하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교직에 대한 교사의 소명의식(召命意識)이며, 또 다른 하나는 교직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다.

교사의 전문성은 아무나 교사가 될 수 없다는 의식에서 비롯된다. 교사는 기존의 지식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다. 교사의 전문성은 각급 학교, 각 교과, 학습 대상자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 특수성에 알맞은 지식을 재구성하고 적절한 교수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게 하는 인도자이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본이수과목, 필수 및 선택과목의 범위와 이수학점 등을 설정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교사들의 전문적 권위를 신장시키고 나아가 교직의 사회적 공신력을 제고시키는 첫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사범대학 교육 과정 편성·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표준 교육 과정 규정 미비

우리나라 사범대학은 중·고등학교의 교원을 양성을 위한 특수 목적대학으로 규정하고 그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 교과 과정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이 자율성을 위임하고 있다. 즉 교사들이 배워야 할 최소한의 표준 교육 과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교원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과목내용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각 대학마다 동일학과임에도 교과교육 내용을 달리하여 편성·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범대학에서 교양 28~40학점, 교직 15~20학점, 교과 교육을 12~15학점, 전공 35~40학점 등을 이수하고 있으나 실제 교과목은 아주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이수시키고 있으며, 특히 교과 교육인 경우

대학마다 그 차이가 아주 심한 형편이다. 따라서 일선 현장에 배치되는 초임 교사들의 출신 대학에 따라 현장 적응능력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2. 교육 과정 편성·운영의 정체성

일선 현장의 교육 과정은 사회·문화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5~6년을 주기로 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천년의 지식·정보사회를 대비할 교육에 있어서는 보다 정밀한 교사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고 그에 따라 2000년부터 제7차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 과정의 변화는 단순히 교수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시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익히는 것과는 달리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의 변화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철학이 없이 단순히 교과서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교육 현장에서 교육 과정의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범대학의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수년전의 교육 과정을 그대로 편성·운영하고 있거나 일부 과목의 명칭만을 바꾸어 운영하는 등 그 변화를 크게 찾아보기가 힘이 든다.

또한 지식·정보화 시대라는 현재사회에서 이미 일선 학교에서는 다양한 멀티미디어와 컴퓨터 등을 이용한 교수-학습 자료의 제작 및 활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또한 중·고등학교는 과거의 학년, 반 개념이 아닌 교과교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각 교과 교실마다 구비되어 있다. 그럼에도 과학과 등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전국 사범대학의 대부분 학과에 교수공학 관련 과목개설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일선 현장에 배치되는 초임 교사들 대부분이 수업매체제작과 활용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일부 교사들은 관리자뿐만 아니라 학생들로부터도 무시를 당하는 실정이다.

3. 사범대학의 과학(물리)과 교육 과정의 문제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과학과의 모든 활동은 탐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단원별로 특정 탐구 요소를 명시하지 않고, 그 활동에 적절한 탐구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 놓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사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적절한 탐구 활동을 제시할 수 있게 하였다.

탐구는 탐구 과정과 탐구 활동으로 구분하고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심화, 발전하도록 구성하였는데, 탐구 과정은 다시 기초 탐구(관찰, 분류, 측정, 예상, 추리 등)와 통합 탐구(문제 인식,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자료 변환,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일반화)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탐구 활동은 토의, 실험, 조사, 견학, 과제 연구 등을 포함시켜 다양한 탐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10학년(고등학교1학년)과학의 '에너지 전환'단원을 제외한 다른 단원의 보충 학습 내용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실험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바뀐 과학과 교육 과정은 체험 위주의 탐구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사범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물리 실험의 경우는 실험 기자재의 사용에서 완제품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실험 방법 또한 매우 상세하게 지시된 형식을 따르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철저하게 규격화된 보고서까지 첨부되어 있어서 학생들은 단순히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실험을 수행하고 보고서의 빈칸을 메워서 제출하는 것으로 끝내게 되어 있다. 이는 학생들의 탐구 정신과 창의성 개발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더구나 대학 실험의 많은 부분이 고등학교 실험 종목과 일치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대학에서는 대체로 완제품의 실험기구를 지침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므로 오히려 고등학교 실험과 비교하여 탐구정신이나 창의력이 불필요하게 된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구심력 측정실험의 경우 고등학교에서는 원운동 하는 물체에 연결된 끈을 유리 대롱 사이로 늘어뜨리고 그 아래에 추를 매단 다음에 원운동 하는 물체의 질량과 회전반경 그리고 추의 질량을 측정하여 구심력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대학에서는 구심력 측정장치를 사용하여 구심력을 측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구심력 측정장치가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구심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순발력과 창의성을 키울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점은 실험의 내용 즉 그 수단과 방법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사용중인 1987년판 실험교재는 1961년판 실험 교재의 복사판이라고 할 정도로 그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최신의 정밀한 측정장비 사용이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대학 일반 물리 실험은 과거의 방법을 복습만 시킬 뿐이고 과학기술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거나 일선 현장의 과학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사를 배양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는 이미 컴퓨터를 이용한 MBL실험, 로켓 조립, 전자 키트를 이용한 다양한 실험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극히 일부 사범 대학을 제외하고는 이를 지도하거나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운영하는 예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따라서 일선 현장에 배치되는 초임 과학교사들은 이러한 실험 과정을 습득하기 위해 사설 기관에서 연수를 받는 등의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4. 현장과의 연계성 문제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근무현장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실습, 교사재교육(연수)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1) 현장에서 교육실습 문제

행정권한이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원자격 검정업무 및 자격증 발급, 기재사항 정정 권한이 대학의 장에게 위임·위탁되어 있다. 따라서 사범대학 교육대학 학생

의 경우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이 확정되면 무시험검정에 의해 교사 자격증이 수여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교육대학인 경우 2학년 때부터 3개년간 부설초등학교 등에서의 교육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범대학인 경우는 4학년 때에 한하여 4주간의 교육실습으로 교수 학습지도, 학생지도, 진로지도, 학급관리, 상담 활동 등 다양한 교육 과정 및 교육 활동의 실습을 마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는데 한계가 있으며, 충분한 교사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아무런 사전평가 없이 교사자격증을 기계적으로 수여하고 있음은 우수교사 확보를 위해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2) 사범대학에서의 교원 연수 문제

지식의 폭발, 매스컴의 발달과 정보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교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비하여 현직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교사의 현직 교육을 위한 연수활동이 대학, 연구소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여러 교육관련 기관 연수원 및 사범대학교 부설 연수원 등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수는 연수시간이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려 교사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연수 내용이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방학 등 특정 기간에 한해서 실시되기 때문에 연수 내용을 현장에 적용시켜 보고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현직 교사들의 대학에서 운영하는 연수는 기피하고 철저히 외면을 당하고 있다. 최근 과학과 및 사회과 통합교육과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중등 교사연수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통합교육과정 연수가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과학과 사회과의 통합교육을 위한 제도이며, 교육부에서 그에 따른 교재를 개발하여 각 연수기관에 보급하여 그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교육과정 연수를 담당하는 일부 대학인 경우 개발·보급된 교재를 무시하고 교수들이 자체 제작한 교재를 가지고 대학의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강의를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연수기관인 대학과 교사들과의 마찰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연수 거부 등의 심각한 사태까지도 벌어지고 있다.

3) 기타

이외에도 A/S가 많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특히 교사를 배출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그것으로 임무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여 추수 지도 형태의 교사 지도가 없는 실정이며, 교육대학원 또한 교원들의 전문적 성장을 위한 연수과정으로 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상위 교원 자격증 취득 및 학위취득을 위한 과정으로 전락되는 느낌으로 교육대학원 본래의 설립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셈이다.

Ⅲ. 개선방안

1. 표준 교육 과정 준칙 제정

사범대학이 중·고등학교의 교원을 양성을 위한 특수 목적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사범대학의 교육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그 질적 수준을 고도화시키고 교육의 전 과정에서 비정규 양성기관의 교육 과정과는 내용과 방법 면에서 차별화 될 수 있어야 한다. '사범대학'이라는 간판만 걸었다고 해서 사범대학으로서의 위상이 저절로 확립되어 가는 것은 아니다. 겨우 교직과목을 몇 학점 부과하는 것만으로 교사양성교육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사범대학의 교육 과정과 그 운영은 여타 기관의 그것보다 탁월하게 비교우위를 점해서 이른바 '교사 교육의 차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의 교육과정을 고려한 '사범대학 교육 과정 준칙'등을 제정하여 교사양성기관으로서의 사범대학의 특수성을 살리고 전문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사범대학의 표준 교육 과정을 범제화하는 것이 사범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교육운영의 획일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있겠으나 중등교사 양성기관으로서 따라야 할 최소한의 기준 즉 일반교육학,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 등 각 영역별로 필수 이수 과목과 선택과목 그리고 이수 학점 등을 제시하고, 일선 현장의 교육과정과의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의 탄력성도 갖추자는 것이다. 자율화를 구실로 중등교사교육이 철학도, 원칙도 없이 표류하도록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교사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의 표준화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적정 수의 교수 확보는 물론이고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의 교사교육은 강의실과 칠판만으로도 족한 이른바 가장 돈이 안 드는 값싼 교육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투자 없이는 질 높은 교사교육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전제아래 앞으로 사범대학에는 적어도 교수·학습 자료센터, 수업분석실, 어학실습실, 컴퓨터실, 멀티미디어실 등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 각종 관련자료와 설비가 확보되어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교사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교수, 시설설비 등을 포함하는 '사범대학 교육 과정 준칙'이 서둘러 제정되어, 교사교육 기관평가 등에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과학(물리)과 교육과정 개선방안

최근 탐구능력의 배양이 과학교육의 목표가 되고 있으나 앞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행되는 일반 물리 실험은 그 내용이 매우 고전적이며 방법이 너무나 구시대적이다. 거기에 구성은 지나치게 상

제한 지시로 구체화되어 있으며 보고서 양식이 규격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험 기구 또한 완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별로 지적 활동 없이 단순 작업을 반복하여 특징 없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보고서의 규격화는 평가의 편익을 위하여 학생들의 탐구 활동을 제한한 매우 그릇된 처사로 생각된다. 따라서 실험 수행 방법은 선정된 주제에 대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이론을 조사하며 필요한 기자재를 조달하고 이를 조립하며 얻어낸 결과를 토론과 협의의 과정을 거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실험 수행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1) 세부 실험 과목별로 학생을 3~4명 단위의 조로 구분한다.
- 2) 각 조는 한 학기당 한가지 주제에 대한 실험만을 수행한다.
- 3) 각 조는 선정된 주제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하여 이론을 정립한다.
- 4) 각 조는 선정된 주제를 다룬 이미 알려진 각종 실험 방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 5) 각 조는 이미 시행된 각종 실험에 비하여 개선된 실험 방안을 스스로 수립한다.
- 6) 각 조는 실험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수급 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가급적 교내의 기자재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 스스로 시장 조사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실습비를 배정한다.
- 7) 각 조는 실험 기자재를 목적에 맞게 조립하고 실험을 수행한다.
- 8) 교수는 학생들이 실험을 통하여 과학하는 방법과 탐구하는 방법을 배우고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각 조의 구성원들이 아무 선입관 없이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 9) 각 조는 실험 결과를 분석, 검토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 10) 각 조는 학기말에 발표회를 열고 실험 결과를 공개한다.

또한 학생들의 창의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고서는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나 위의 개선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은 반드시 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 1) 실험의 목적
- 2) 실험 수행에 필요한 이론
- 3) 과거에 수행된 실험 조사 비교 분석
- 4) 개선된 실험 계획의 수립
- 5) 기자재 조달 및 활용 방안
- 6) 실험 일정 수립
- 7) 실험일지

교수는 학생들이 수립한 실험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조언을 할 수 있으나 가급적 독창성을 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생들이 실험 결과에 따른 학점에 평가에 대하여 지나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실험실과 세미나실의 상시 개방과 예약 사용 제도의 도입, 교수 학생, 학생 학생간의 실험 정보 교환이 가능한 컴퓨터 통신망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학생들이 실험을 통하여 탐구 능력을 배양하고 과학적 사고 능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정해진 지침 없이 스스로 실험 계획을 수립하고 문헌을 조사하며 기자재의 조달 방법을 강구하고 직접 부품을 제작하며 과거에 진행된 실험에 비하여 향상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물리 실험 교육의 방법이 개선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학생은 실험을 통하여 과거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실험의 전 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진행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창의성과 탐구력을 갖춘 실험 수행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또한 새로운 실험 방법 및 새로운 기재재의 활용 능력 및 필요한 부품을 학생들이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습득 갖추게 될 것이다.

4. 현장과의 연계성 강화

1) 현장에서 교육실습 문제

현재와 같이 교육 실습 과정을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실시하지 말고 공개전형에 합격한 학생들로 하여금 임시교사의 신분으로 1년 동안 수습교사제과정(internship)을 거치도록 하여 현장실습과 실무경험을 충분히 쌓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수습교사제는 초임교사의 교직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기 위한 일종의 연수프로그램(induction program)인 것이다. 공개전형에 합격했다고 해서 곧 바로 교단에 서게 하기에는 이들의 전문적 준비가 너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 기간 중에 수습교사들은 전문성이 높은 교사로부터 교과지도에 대한 실질적인 연수를 받게 됨으로서 자신의 전문성을 심화시켜 나가고 현장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전문성이 높은 교사의 지도아래 교재연구, 모의수업, 학생지도, 학교실무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정규수업은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수습기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정식임용을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 수습기간을 6개월 연장하도록 한다. 수습교사는 정규교사 보수의 80%를 지급 받도록 한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수습교사제를 채택하도록 유도하되, 악용되지 않도록 임용의 공개전형화와 평가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사범대학에서의 교원 연수 방법 개선

대학에서 실시하는 연수들이 교사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이유는 연수 내용이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방학 등 특정 기간에 한해서 실시되기 때문에

연수 내용을 현장에 적용시켜 보고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사 연수는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를 바탕으로 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사들 자신이 연수를 통해 배우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는 작업이 선행되고, 이러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하여 개발된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라야 진정으로 내실 있는 교사연수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또한 교원 연수는 대학만이 독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교육현장과 유리된 교사교육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교원양성교육과 더불어 교원 연수는 대학중심체제에서 벗어나 교육현장과 동반자적 관계를 맺어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서 이론과 실재를 상호 교류·접목시켜 교원양성교육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범대학과 중등학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교과별로 현장의 우수한 교사가 강사로 초빙되어 교사교육 실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3) 기타

일선 교육의 현장에서 부딪치게 되는 다양한 문제 상황들에 대한 해결 방안의 모색과정에서, 교사들의 모임을 통해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공동의 노력을 통해 교육의 현장을 개선하려는 다양한 자율적 연구모임이 성장해 왔다. 교사들이 학습지도에서 부딪치는 문제점들을 교사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야말로 교육 현장을 변화시키는 데 실제적이고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추수지도의 일환으로 동문회 등의 교사 모임을 대학과 연계하여 함께 어울려 서로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연구모임을 통하여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리고 교수 학습 자료를 서로 공동으로 개발하기도 하고, 탐구 활동 모델을 제안하는 등의 자율연수 형식을 통하여 교사들의 실제적인 필요에 부응하는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IV. 결 론

교육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 교사, 학부모 모두가 관심을 갖고 올바른 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사

의 질적 제고(提高)를 위해 교육개혁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할 것이나, 본고에서는 사범대학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방안을 현장교육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논의해보았다.

사범대학의 교육 과정 운영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원양성과 관련하여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일차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등 교육현장과 연계할 수 있는 탄력적인 '사범대학 교육과정 준칙'을 제정하여 교사양성기관으로서의 사범대학의 특수성을 살리고 전문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정 수의 교수 확보는 물론이고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모든 시도는 국가에서 교원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행·재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교육부가 교육대학 발전을 위해서 2003-2007년까지 총 1,158억을 투자하여 교사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사 교육센터 건립, 교육정보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범대학 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종류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사범대학의 책무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고, 우리 교원양성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교직 의식도 달라져야만 한다. 이제 우리 교원양성교육은 전문화·경쟁화를 지향하면 체제혁신을 적극적으로 꾀해야만 하는 절박한 시점에 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교육 문제에 대한 관점은 다를 수도 있고 해법 또한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해법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것은 교사의 질(質)적 제고(提高)이다. 따라서 교사의 질(質)을 결정하는 두 요소인 소명 의식(召命意識)과 전문성을 고양시키고 확보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이 나아가야 하며 동시에 이 부분에 적극적인 교육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정부와 사범대학 구성원들의 분발을 촉구해 마지않는다.

참 고 문 헌

1. 교육부. 1998. 고등학교교육과정(I). 대한 교과서주식회사.
2. 교육부. 1995. 고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pp. 78-239.
3. 권재술 외 5인. 1998. 과학교육론. 교육과 학, pp. 406-429, 163-192.
4. 김범기. 1999. 제 7차 과학과 교육과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과학교육 (3월), pp. 55-64.
5. 조희영. 1988. 과학교육과정 및 과학 교수/ 학습의 이론적 배경과 미래과학교육에 대한 시사점. 한국과학교육학회지 8 (2), pp. 33-42.
6. 노종희. 2004. 교원양성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육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7. 이윤식. 2004. 교원평가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육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